

선진미술관서 배운다

9 오스틴 미술관

미술 애호가 어릴때부터 키운다

미국 텍사스주의 주도(州都)인 오스틴 시(인구 64만명)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대 학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학생 규모로는 미 국 최대인 학생 5만명을 자랑하는 텍사스 대학 오스틴 캠퍼스가 위치해 있기 때문이 다. 오스틴은 북동쪽의 샌 안토니오를 비롯 해 휴스턴, 달라스, 엘파소를 거느리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텍산(Texan·텍사 스 사람들)'의 별호 불리기도 한다.

어울리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오스틴 미술관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 은 1961년. 지난 1943년 여성사업가이자 자 선사업가, 역사보존학자로 큰 명성을 쌓은 '텍사스의 전설' 클라라 드리스콜(Clara Driscoll·1881~1945)여사는 시 외곽의 라구 나 글로리아에 있는 자신의 빌라를 텍사스 사람들의 예술적 감성을 키우는 미술관으로 사용해달라며 오스틴시에 기증했다. 그의 뜻

로 확장시켰다. 80년대 이후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미술관은 양·질적인 면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경험했 다. 지역사회의 주요시설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다 운타운 미술관 건립이 필요했던 것이다. 1992년 미술관 이사회는 가정 '오스틴 미 술관'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모금운동을

다. 특히 보다 많은 시민들을 시각예술의 애 호가로 양성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획전과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했다.

오스틴 미술관의 콜렉션은 미국 작가위주 로 구성돼 있으나 종종 외국작가들의 작품 도 수집한다. 소장작품 가운데에는 고 백남 준씨의 작품을 비롯 척 클로즈, 폴리 아펠바 윌, 도날드 주드, 자클 로렌스, 앤디워홀, 에 드 루사, 마뉴엘 알바레스 브라보 등 유명작 가들의 명작도 포함됐다.

오스틴 미술관의 강점은 철저히 지역사회 에 뿌리를 둔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 운영 에 있다.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연령 별, 계층별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민들을 미술관으로 끌어들인다.

'패밀리 랩(family lab)', '두번째 토요일 행사'등 가족단위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이 들을 미술관의 평생 후원자로 양성한다. '패 밀리 랩'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예술적 감상과 관찰, 체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 운 개념의 인터랙티브 공간이다.

성인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갤러리 토크', 강좌, 영화 상영, 가이드 투어 등을 개설, 시 각문화에 대한 심미안을 길러주는 데 주력 한다. 또한 '오스틴 뮤지엄 데이', '독서감상 회'영화 상영의 날' 등 어린이 관람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를 곁들여 미 술관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이밖에 미술관 1층에 들어서 있는 아트스 픈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또 하나의 볼 거리다. 이색적인 선물용품과 교육적 효과 가 높은 장난감, 미술서적, 수공예 보석, 가 정용 인테리어 소품 등 수백여종의 아트상 품이 진열돼 있다.

오스틴=박진천기자 jhpark@kwangju.co.kr



▲ 텍사스 오스틴 시의 다운타운에 위치한 '오스틴 미술관(Austin Museum of Art)' 전경.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분위기의 외관이 인상적이다.

▼ 미술관 1층에 지리한 아트숍에는 선 물용품, 교육자료, 미술서적, 가정용 인 테리어 등 수백여종의 아트상품들이 진 열돼 있다.



4~17세 어린이·청소년 대상 아트스쿨 강좌 철저한 지역사회 위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선물·생활용품 등 수백여종 아트상품 판매

을 받들어 지난 1961년 지역을 라구나 글로 리아 미술관으로 개조,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문화명소로 키웠다.

1960년대 초 라구나 글로리아 미술관 이 사회는 오스틴 시민들의 문화마인드를 개발 하기 위해 이곳에 미술관의 핵심시설의 하나 인 '아트스쿨'을 열었다. 미술관은 늘어나 는 수강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아트스쿨의 시설을 보완해 1만5천여평 규모

전개했다. 성공적인 모금캠페인에 힘입어 1996년 지금의 다운타운에 문을 연 오스틴 미술관은 수준높은 기획전과 교육 프로그램 을 갖춘 전시장 위주의 공간으로 거듭났다. 오스틴 미술관은 최근 수년간 팝아티스트 앤디 워홀(2003년)과 생테미술가 앤디 골드 워시(2004), 대지미술가 크리스토퍼와 장 클 로드부부의 작품전(2006)을 잇따라 기획해 지역민들의 문화욕구를 해소하는 데 앞장섰



오스틴 미술관이 운영하는 '아트스쿨'에서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잠재된 감성을 표현하라”

'지역문화 산실' 오스틴 아트스쿨

“잠재된 감성을 표현하라(Express yourself!)” 오스틴 미술관이 운영하는 아트스쿨의 설립정신이다. 오스틴 미술관이 지역문 화의 산실로 불리는 이유는 독자적인 아 트스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아트스쿨의 목표는 수강생들의 창의성 을 기르고 문화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모든 수업이 소규모 단위로 진행돼 교사들과의 상호 교감이 가능하 다. 지역 특성을 이용한 야외수업이 커 리큘럼으로 짜여져 있으며 학생들은 학 기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를 직접 체 험할 수 있다.

아울러 아트스쿨은 다운타운 미술관에 서 열리는 전시와 연계한 이벤트제로 운

영되며 초보자 뿐 아니라 예술가를 꿈꾸 는 미래의 작가 등 모든 지역민들에게 문 화가 개방돼 있다.

1년에 3학기(겨울시즌 제외)로 나뉘어 열리며 성인강좌(드로잉, 뷰티, 도예, 조 각, 사진, 컴퓨터아트, 유화 등)와 4~ 17세까지의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부 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수업 등 다양한 내 용으로 진행된다.

아트스쿨의 코디네이터 제인스 티스데일 은 “어려서부터 미술을 접해 본 어린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미술을 가까이 한다”면서 “미술관은 미래의 미술애호가를 양성하 는 학교”라고 말했다. /박진천기자 jhpark@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부광공인중개사,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현대공인중개사, and 법원경매.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property listings.